

‘광주민의 5·18’ 풀어야 할 ‘숙명의 과제’

왜곡·반쪽행사 ‘부끄러운 역사’ 여전
증복행사 피하고 시민 참여 ‘성공적’

결산 5·18 33주년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5·18 광주민중항쟁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5·18 33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지켜본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3주년 행사위)가 내세운 ‘오월 정신 전국회’는 요원하기만 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아 향후 기념행사에 내실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발포 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진정 어린 사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묵은 과제 외에도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면서 왜곡되고 부정되는 현실과 싸워야 하고 5·18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워야 할 과제도 떠안았다는 얘기다.

우선, 국가보훈처가 5·18 대체 기념 꼭 예산을 편성하면서 촉발된 ‘임



민주 기사의 날인 20일 오후, 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기사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1980년 5월 차량시위를 재연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5월 영화제(11일~15일)·5·18 도전 골든벨(14일)·광주인권상 수상 을 악회(18일) 등 행사는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3주년 행사위가 5·18 기념재단과 협력을 강화해 행사 체계와 예산 관리를 일원화한

점도 고무적이다.

33주년 행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타 지역에서 열리는 5·18 행사 예산과 관련, 주관단체에 전권을 주면서 원활한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33주년 기념행사는 ▲양동

주민밥 나눔 한마음 축제(22일) ▲오 월 상설, 문화마당(19일~23일) ▲전 국 학생 글쓰기 미술 한마당(25일) ▲청소년 문화제 ‘레드 파스타’(25 일~26일) ▲전국 휴고대회(25일) ▲부활제(27일)를 끝으로 막이 내린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계엄군 시민 향해 기총소사… 시신 즐비

33년전 그날엔…

생존 위한 시민들 무기탈취

되돌아 보는 5·18

공수대원들과 총격전 감행

(3) 21일 공수부대 집단 발표

‘초파일의 유혈극’ 벌어져

5·18 민중항쟁 발발 날짜인 21일 광주엔 총성이 난무했다.

이날 정오까지 퇴각하겠다던 계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분노한 시민들은 버스(22대)·장갑차(3대)·군용트럭(33대) 등을 몰고 도청으로 향했다. 오후 12시45분 현재 시위대 행렬은 30만 명을 넘어서 상태였다.

전날 밤 21일 이후 계엄군은 전 남도청 주변 등에 포진한 채 시위대와 맞서고 있었다.

시위대가 군용트럭·버스를 이용, 계엄군을 향해 돌진하는 군 저지선 돌파작전을 수 차례 반복하자, 계엄군은 도청 앞 분수대까지 밀려났다.

이때 갑자기 귀를 찢는 총성이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장갑차 위에 몸을 드러내놓고 도청으로 진격하던 학생이 피를 내뿜으며 숨졌다.

계엄군은 신을 중인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LMG기관총을 낚시했다. 도청·수협 건물·전일빌딩 옥상에서도 조준사격을 가했다.

시위대는 생존을 위한 무장의 필요성을 느꼈다. 시민들은 무기탈취를 위해 곧바로 시외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이 사이 광주 상공을 떠돌던 군용헬기가 도청 부근을 선회하더니,

MBC 인근 제봉로 인근에 기총소사(機銃掃射·비행기에서 목표물을 기관총으로 쏘는 것)를 하기 시작했다. 시내 곳곳엔 기총소사를 받고 죽은 시신들이 즐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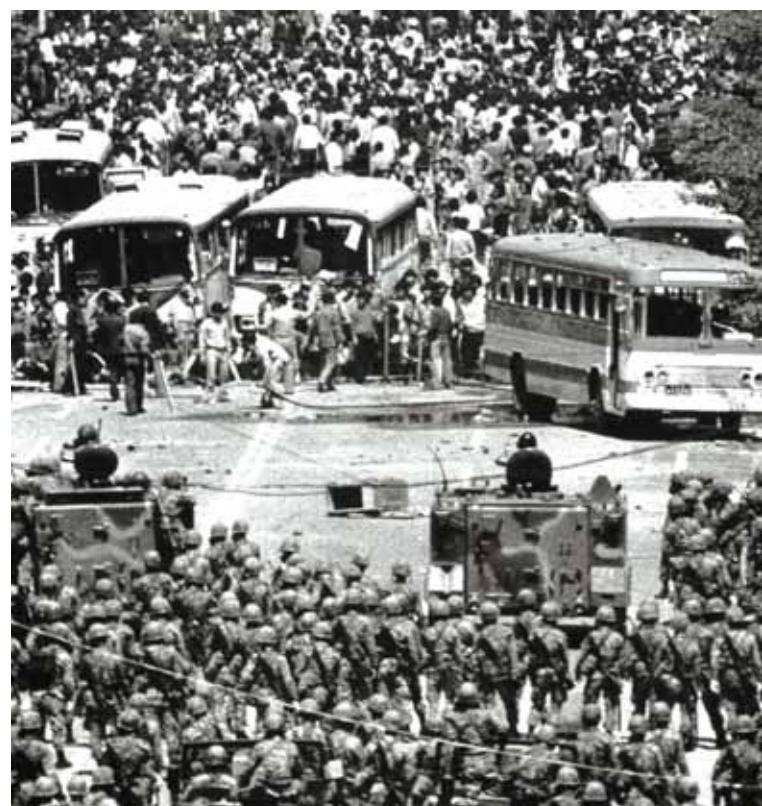
오후 3시30분, 시내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빠져나온 시위대들이 도청으로 속속 재집결했다. 무장한 시위대는 도청 앞 군경지선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공수대원과 시위대 간 총격전이 개시된 것이다. 시가전은 계엄군이 도청에 철수한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민들은 총격 직후 무장한 시위대를 일반 시위군과 구별, ‘시민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시민군은 이날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사수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부처님 오신 날’ 광주에서 ‘초파일의 유혈극’이 벌어진 것이다.

시민군은 이날 계엄군을 몰아내고



1980년 5월 21일 오후 시민들이 도청 앞 저지선을 뚫으려다 멈춘 버스를 바리케이트로 이용,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제공)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화사한 봄나들이 가세요~!

상담 및 예약 :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모든나리여행사 062)521-2100

남해여행사 061)287-4100

여로관광여행사 061)742-1270



편안한 무안출발 상품

국내/제주도 상품



국내/제주도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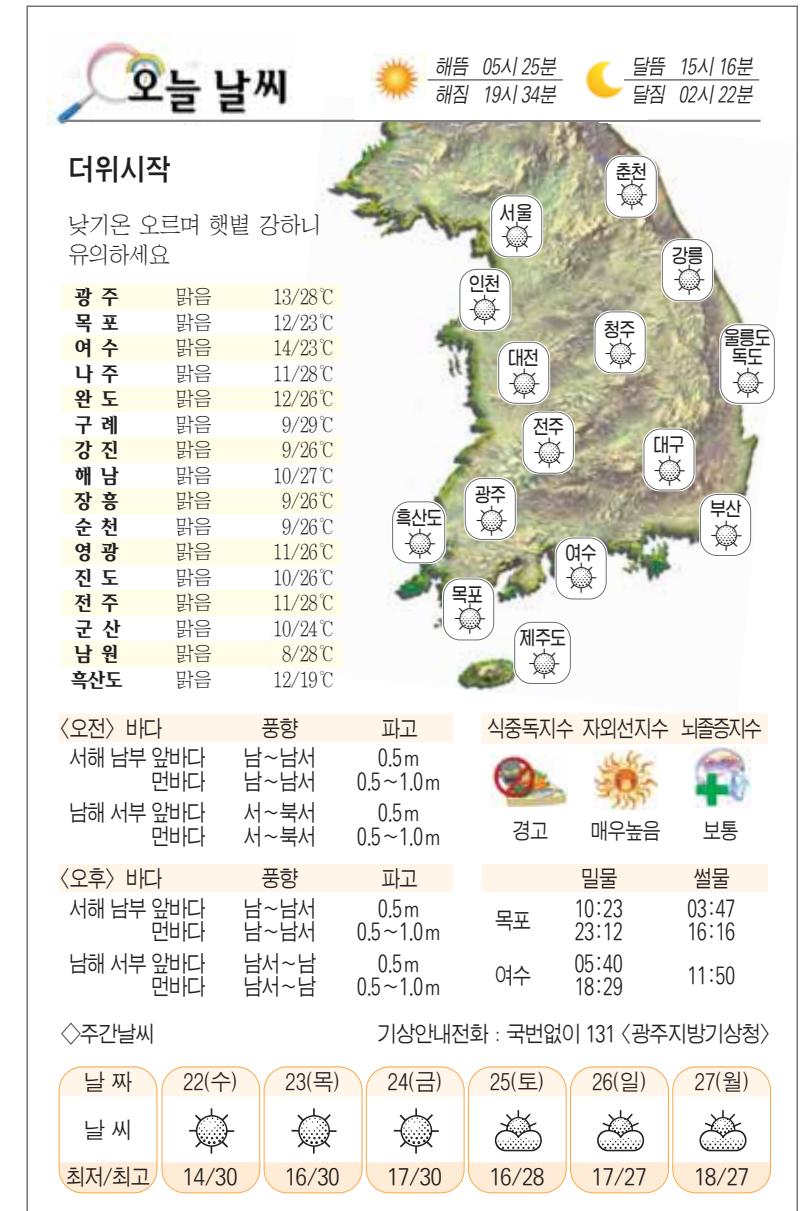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HANATOUR INTERNATIONAL TRAVEL SHOW 2013

일자 5월 24일(금)~5월 26일(일) / 3일간
장소 고양 캠퍼스 제 2전시장 (7,8 HALL)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기아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인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외 별도로 부과되며, 유류세는 종합기준비(0.4009원/ℓ), 특전: 운전원 헬프(5등급), 숙박, 전일정상(케이블카), 밸류서비스, (율55%도)

■서울시 종로구 광평동 1번지 죽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불편신고 Tel 1577-1233 \ ■22억 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 2급호텔이상 ■교통편: 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30개 고교 진로교육 우수 콘텐츠 소개

전남교육청, 내일부터 화순서 ‘진로박람회’

전남도교육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화순 하나님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13 전남 진로박람회’를 연다.

‘꿈 찾다 떠나는 진로테마여행’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남지역 초·중·고교 25개 진로동아리 공연팀이 30개 고교 진로교육과정 운영에서 발굴한 우수 콘텐츠를 소개한다. 또 자기 이해에서 진로 설계까지 단계별 진로교육과정을 테마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직업 흥미와 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꿈꾸는역’,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꿈찾는역’, 대학 학과 및 진로상담을 제시한다. /박정기자 jwpark@yna.co.kr

자 통합메일’, ‘공무원용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31종을 개통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외에도 8월에는 시·도 행정 포털시스템과 시·군·구 행정 포털시스템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는 현장 행정에도 활용된다.

/연합뉴스

공무원 ‘모바일 행정’ 서비스

스마트폰·태블릿PC 활용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바일 행정에 본격 나서게 된다.

2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정부 공무원 업무 포털시스템인 ‘온나라와’·‘공직

자 통합메일’, ‘공무원용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 31종을 개통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외에도 8월에는 시·도 행정 포털시스템과 시·군·구 행정 포털시스템도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바일 행정 서비스는 현장 행정에도 활용된다.

/연합뉴스